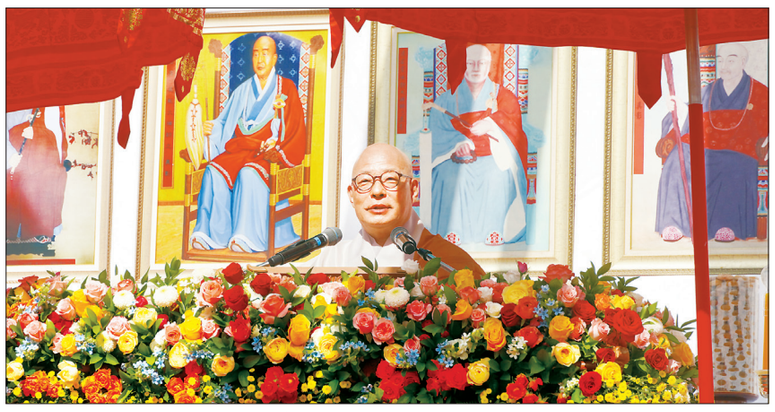
진우 스님 "웬만한 건 그냥 넘기자"

10월 11일 봉은사 개산대재 개막
진우 스님, 조사 다례재서 법문
19일까지 전통문화 행사 풍성
국가무형유산 생전예수재 봉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1일 봉은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개산 1232주년 역대조사 다례재'에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 12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개산대재의 의미를 오늘날의 수행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법문을 펼쳤다.

봉은사는 10월 1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산 1232주년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하며 19일까지 이어지는 개산대재의 시작을 알렸다. 개산대재는 사찰의 창건을 기념하고 역대 조사들의 원력과 수행 정신을 기리는 불교의례다. 신라 원성왕 때인 794년 연회국사가 창건한 봉은사는 오랜 세월 도심 속 수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해 왔다.

다례재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며 불자들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살아가는 데 웬만한 것은 그냥 넘기자"며 "마음을 넉넉하고 평온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인 삼독심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커지는 만큼, 순간순간 마음을 내려놓는 선명상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5초라도 마음을 내려놓으라"며 짧은 순간이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권했다. 선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설명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권하기도 한 진우 스님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인연을 쌓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삼독심이 커져 버리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 없다"며 부처님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조사 진영 앞 헌다를 준비하고 있다.

봉은사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역대 조사들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전통불교의례와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나눴다. 특히 사찰의 역사와 수행 전통을 되새기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로 10월 11일에는 '제12회 봉은사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가 경내에서 열렸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해 '행복한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가족과 함께 사찰의 가을 풍경과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전통문화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통문화체험관 앞마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차 명상과 탈 만들기, 다식과 종이꽃 만들기 등이 운영됐다.

10월 18~19일에는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의식이 진행됐다.

봉은사 사천왕 캐릭터 공모전 시상도 했다. 앞서 봉은사는 사천왕상을 소재로 전통 불교문화에 현대적 디자인을 융합해 고유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공모전에서는 장진아 씨가 우수상, 윤상태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원명 스님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온 생애 던진 무애행, 영원한 죽비소리로"

봉은사, 명진 스님 49재 봉행
대종사 법계증 등 영단에 봉정

"명진 스님은 말로만 부처님 법을 외치던 저희에게 몸으로 행동하며 부처님 법을 보여준 참된 수행자였습니다. 내 안위를 넘어 자비로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황남수 전 봉은사 신도회장의 조사 중에서)

명진 스님을 추억하는 목소리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스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그리움을 전한 이들은 생전 몸소 보여준 자비와 연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8월 22일 입적한 명진 스님의 49재가 10월 9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거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전 봉은사 주지 진화·원명 스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생전의 뜻을 기렸다.

49재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하고, 상좌 대표 선용 스님이 헌다를 올렸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신학철 백기완재단 이사장은 대표로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하던 명진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도 함께 들으며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사부대중을 대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하는 모습.

특히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는 봉정 의식도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10월 6일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자격을 추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법계증과 25조 가사, 휘장을 영단에 봉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명진 스님의 삶을 어떤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격외'의 시간이자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허문 자유인의 걸음으로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선방의 적막과 저잣거리의 소란을 둘로 보지 않으셨고, 불의 앞에서는 추상같은 사자후로 일주문 밖을 흔드는 죽비였으며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그늘이 돼 줬다"며 "흙탕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난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연꽃이 바로 스님의 삶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종사' 법계 추서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체의 상과 이름을 벗어던진 스님께 명예가 무슨 무게를 더하겠습니까마는 온 생애를 던져 무애행을 펼치신 스님께 세상과 종단이 바치는 가장 정중한 헌사"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10월 12일 입재식 후 참가자들이 수행 정진에 나섰다. 가을 안거는 11월 11일까지 이어진다.

30일 가을 안거…선·교 함께 닦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교직원·학생 대상 11월 11일까지

동국대가 학기 중에도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30일 가을 안거에 들어갔다. 참선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며 선(禪)과 교(敎)를 함께 닦는 수행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0일간 동국대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홀에서 가을 안거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부생 등이 참여하는 비숙박형 수행 과정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 전통인 간화선과 무문관 수행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적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경험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통불교 수행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교육·수행·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가을 안거는 방학 기간에 집중됐던 기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학기 중에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대 구성원들이 업무와 수업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을 안거에는 21명이 참가 신청했다.

10월 12일 열린 입재식에서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일상에서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 스님은 "바쁜 학기 중에도 선명상홀에 와서 한 시간이라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조한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자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수행을 이어가는 경험을 쌓는다. 전체 일정 중 70% 이상을 참여하면 수료증을, 70% 미만 참여하면 동참증을 수여한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학기 중 수행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봄 안거 등으로 수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로 일상에 쉼표 조계종은 10월 14~16일 서울 조계사에서 '2026 불교문화대전'을 열었다. '마음의 쉼'을 주제로 진행된 불교문화대전에서는 불교 가르침과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 쉼 토크', 음악회, 강연, 불교도서전, 팝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배희정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錦明,雪峯,東佑,雲山,瑞峰,會梵,一雲,道光,祥明,雪山,觀正,法京,碧山,月峰,慧周,無德,古潭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教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宗正禮敬室長 東虛
教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教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教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教大學學長 法潭
教學處長 哲悟
韓國佛教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